<돌발 보고서#1>

공과대학 컴퓨터공학부

2011-11703 박태헌

(1번 지문 선택)

현자는 그녀의 불가능한 부탁에 대응한 불가능한 제안을 한 것이다.

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릴 수 없다는 것은 혹, 불분명한 미래에는 가능할 지언정, 현재까지 귀납적 관점으로 봤을 때 불가능한 일이다. 그에 따라 그녀를 비웃는 마을 사람들은 ‘인간은 죽으면 되살릴 수 없다.’는 전제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. 여기서 마을 사람들을 좀 더 일반화 시키면, 일반적인 혹은 이성적인 사람이다. 반대로, 아이를 잃은 그녀의 행동은 ‘인간은 죽으면 되살릴 수 있다.’는 전제를 바탕으로 둔다기 보다는 크나 큰 슬픔 앞에 이성을 잃은 그녀의 소망을 표출하는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.

현자는 아이를 잃은 그녀가 아이를 되살리고자 하는 행위에 분명 이성적 판단을 하기 힘든 상황이란 것을 알아챘을 것이며, 이에 따른 방안으로 불가능한 제안을 한 것이다. 사람은 탄생 이후로 죽음에 가까워지는 존재이다. 돌연사든 자연사든, 현재까지의 관점에선 사람은 반드시 는다. 그리고 죽음과 더불어 고통 또한 피할 수 없다.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, 사람에게 필요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어 한 사람이 모든 자원을 가질 수 없게 된다. 따라서 사람은 선택을 통해 희소한 자원의 일부를 선택해야 하며, 나머지 자원을 포기해야 한다. 사람은 분명 최대의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손실은 발생할 것이다. 물론,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으로 여긴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고, 그에 따라 더 많은 자원을 잃게 될 수 있다. 결국 사람은 모든 행위에 선택이 따르며, 그 선택에 의해 불가피한 손실을 얻게 될 것이고, 손실에 따른 고통을 얻게 될 것이다.

따라서 현자는 크나 큰 슬픔에 젖은 그녀가 이성을 잃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그녀에게 불가능한 제안을 한 것이다. 불가능한 제안을 받은 그녀는,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으로 옮길 것이며 그녀 스스로 귀납적인 실천을 통해 불가능함을 몸소 깨닫는 순간, ‘인간은 죽으면 되살릴 수 있다.’는 그녀의 소망 또한 불가능함을 인지하고 이성을 찾게 될 것이다.